

하와이대학 해밀턴도서관 소장 한글 고문헌 「언문혼간규식」

글로벌 어문학 연구 확대를 위한 국외 소재 한글 고문헌 신자료의 발굴

The Korean Vernacular Manuscript “Eonmunhonganggyusik” Held at Hamilton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 Expanding Glob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through the Discovery of New Overseas Hangul Classical Texts

엄태웅¹⁾

국문요약 이 글은 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에서 확인한 한글 필사본 「언문혼간규식」을 소개하고 그 서지적, 내용적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언문혼간규식」은 1908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에 널리 알려진 방각본 「언간독」·「증보언간독」류와 일정한 영향을 공유하는 한글 규식서이다. 특히 혼례 과정에서 양가가 주고받는 편지 형식에만 집중한 점이 독특하다. 본 자료에는 초행과 재행 시 교환되는 문안 편지가 ‘신부 측 발신 - 신랑 측 답신’ 구조로 제시되어 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내용의 반복성을 인지하여 서식을 축약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은 한글 서식서가 인쇄본 형태로 정형화되어 유통되는 한편,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필요에 따라 변용되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언문혼간규식」은 혼례 의례에서 여성 서사자의 실제적 참여, 한글 편지 작성의 주체로서 여성의 존재, 및 당대 민속적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핵심어 「언문혼간규식」, 「언간독」, 마살 필, 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 한글 고문헌

- 차례**
1. 들어가며
 2. 서지적 특징
 3. 내용적 특징
 4. 문헌의 가치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며, 그간 많은 연구자가 이들 자료를 열람하였지만, 두 차례 서지적 조사·분석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²⁾

필자는 2023년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교무출장 목적으로 하와이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때 만나질 말미를 얻어 해밀턴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을 열람할 기회를 얻었는데,³⁾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짧은 한글 필사본 고문헌을 확인하게 되었다. 「언문혼간규식」이라 부를 수

1. 들어가며

미국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해밀턴도서관(Hamilton Library) 4층 아시아컬렉션(Asia Collection) 내 귀중서고에는 모두 329종 1,354책의 한국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다.¹⁾ 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에 다량의 한국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봉성기·이혜은, 「미국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서

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56, 한국서지학회, 2013, 405쪽.

2) 이러한 연구의 근간이 되는 한국 관련 장서에 대한 것은 2005년 안병걸 교수가 206종 1,054책의 현황을 소개한 것(『미주한국일보』, 2005.5.6). 이 외에는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봉성기·이혜은, 앞의 논문, 같은 쪽. 결국 안병걸의 조사, 봉성기·이혜은의 조사가 전부인 셈이다.

3) 열람을 도와주신 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 아시아컬렉션 Korean Studies Librarian Ellie Kim 선생님께 이 기회를 통해 뒤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있는 이 고문헌은 아직 한 번도 세상에 소개된 적이 없는데, 소략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의 자료적 가치는 남다르다. 이에 이 자료를 소개하고 추후 본격적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문헌의 제명은 ‘언문혼간규식’으로, ‘한글’로만 기록되어 있다. 한자로 쓴다면 ‘諺文婚簡規式’이라 할 수 있다. 초행(初行), 재행(再行) 등 혼례 때 양쪽 집안에서 주고받는 한글 편지의 격식을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婚簡’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혼인 때 쓰는 사주단자와 택일단자 또는 그 단자를 적은 종이’라는 의미보다는, ‘혼례 때 주고받는 편지’라는 의미로 풀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소개된 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 한국 고문헌 목록에서는 이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한자음이 동일한 「諺文混簡規式」⁴이 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 한국 고문헌 목록에 있어서, 「언문혼간규식」과 동일 문헌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諺文混簡規式」이라는 한문 제명은 물론 「언문혼간규식」이라는 한글 제명도 이곳 아시아컬렉션 외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 제명을 한문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기(誤記)가 발생했을 듯한데, 하지만 청구기호 등 도서관 서지 정보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둘이 동일 문헌이라 단언할 수 없다.

「언문혼간규식」은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되었던 「언간독」, 「증보언간독」의 자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자료이다. 「언문혼간규식」속 편지를 주고받는 대상이 「언간독」과 「증보언간독」속 편지를 주고받는 대상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추후 ‘언간독’류 속 편지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혼례와 관련한 편지 내용의 문헌별 동이(同異)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에 앞서 「언문혼간규식」의 서지, 목차를 포함하여 자료의 특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서지적 특징

「언문혼간규식」은 한글(언문) 규식서이다. 발행지, 발행처를 알 수 없다. 다만 발행자와 발행 시기는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발행자(필사자)이다. 이 문헌의 뒷표지에는 책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다만 표지가 마모되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정기숙’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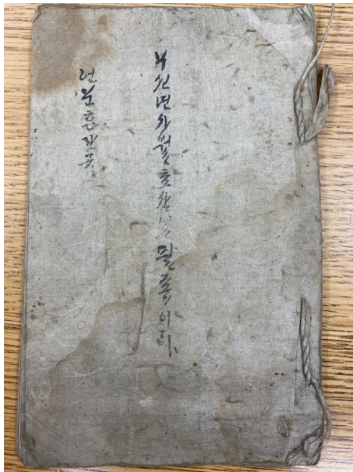
〈사진 1〉 자료의 뒷표지

다음으로 발행 시기이다. 이 문헌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언간독」, 「증보언간독」이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방각본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을 통해 「언문혼간규식」의 출현을 19세기 말보다 앞서 잡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의 표지에는 ‘무신년 사월 초 ○⁵ 필종이라’고 적혀 있다. 19세기 말 이후 무신년(戊申年)은 1908년이다. 따라서 「언문혼간규식」의 발행 시기는 1908년으로 확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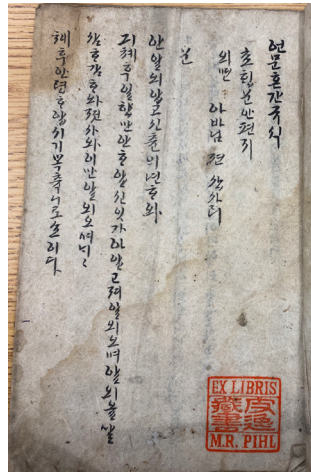
표지에 제목이 있긴 하지만 표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표제로 부각할 만큼 글씨를 크게 쓰지도 않았으며, ‘식’자를 빼고 ‘언문혼간규’까지만 적었다. 물론 이를 대표 제목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본문이 시작되는 첫 장에 ‘언문혼간규식’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표 제목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하다.

5 표지가 마모되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4 봉성기·이혜은(앞의 논문)의 조사 목록(목록 286번, 청구기호 S3-11:405)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https://www.nl.go.kr/korcis/index.do>)에서 「諺文混簡規式」으로 기록된 문헌이 있다.



〈사진 2〉「언문혼간규식」표지



〈사진 3〉「언문혼간규식」첫장

본문 첫 장과 마지막 장에는 마샬 필 (Marshall R. Pihl, 1933~1995) 교수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⁶ 마샬 필 교수는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자로서 한국학이 학문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한국과 학술적으로 교류하였으며, 하와이대학에서 한국학을 교육·연구하고, 하와이대학 해밀턴도서관에 한국학 장서 93종 206책을 기증하였다. 마샬 필 교수의 기증본 중에 한글본 소설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옛한글 자료의 수집에도 관심이 많았던 듯하다. 「언문혼간규식」의 입수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 장(張)의 전면(a면) 좌측 하단에 장수를 적어놓았는데, 필기구가 불펜인 듯하다. 아마도 필사한 지 한참 후에 장을 구별하기 위해 추기(追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이 문헌은 문장 서식을 안내하는 책이라고 하기에는, 필체

⁶ 마샬 필 교수는 하와이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했던 연구자이다. 그의 기증 장서는 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에 93종 206책이 소장되어 있다. 강의 및 연구 자료는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에 소장되어 있다. 마샬 필 교수는 1976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판소리 심청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전인 1960년대에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 수학하였다. 1970년 4월에는 도서관 주관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미국에서의 한국 연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이어갔다. 마샬 필 소장본은 1803년 발간한 「구운몽」, 「심청전」, 「임장군전」, 「열녀춘향수절가」 등의 소설류와 『두시언해』, 『명의록언해』, 『사서언석해』 등 언해류, 1950년대 문교부 발간 국어 교과서 등이 있다. 특히 『한국어학본』은 일본 오사카에서 거류민단들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 정부 문교부의 상세한 검토를 거쳐 1965년에 편찬한 도서로 “MARSHALL PIHL씨게 謹呈 서울特別市鐘路區寬勳洞143 鷄林書院 金知憲”으로 표기된 기록이 있는 희귀본 자료이다. 봉성기·이혜은, 앞의 논문, 407~408쪽.

가 정연하지 못한 편이고, 문서 형식도 잘 갖추지 못한 편이어서, 장수를 매겨놓지 않은 채 장정(裝幀)의 매듭이 풀리더라도 하면 장의 순서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실제로 장정의 매듭도 엉성한 편이다.

행자수의 경우, 매면 8행은 비교적 일정한 편이지만, 매행의 글자 수는 불규칙한 편이다. 매행의 글자 수가 불규칙한 것은 편지의 서식을 소개하는 사정 때문이다. 행의 글자 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최대 27~29자 정도이다. 본문의 장수와 면수는 11장 22면이다. 혼례에 필요한 서식만 담았기 때문에 분량이 그리 많지 않다.

3. 내용적 특징

「언문혼간규식」에 수록된 편지들은 크게 ‘초행’ 편지와 ‘재행’ 편지로 나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초행(醮行, 初行)은 신랑이 혼례식을 거행하기 위해 신부의 집에 처음으로 가는 의식을 말하며, 재행(再行)은 혼례식이 끝난 후 신부의 신행이 있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다시 방문하는 의식을 말한다.

초행과 재행 모두 한쪽에서 임의로 아무 때나 날을 잡는 것이 아니다. 초행의 경우 전안지례(奠雁之禮)의 시간에 맞추고 양가의 거리를 계산한다. 재행은 처가에서 사람이 오면 이에 따라 부모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행한다. 초행과 재행 모두 양가 어른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형식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소통의 매개가 되는 편지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언문혼간규식」에서는 이렇듯 ‘초행’과 ‘재행’에서 꼭 필요한 편지에 들어갈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언간독」이나 「증보언간독」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내용을 참고하되 부분적으로 필사자의 기호에 맞춰 내용을 바꾼 듯하다. 이 문헌에 담긴 편지 서식을 책의 순서를 따라가며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초행 문안 편지’이다. 초행 문안 편지는 다시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보내는 편지’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답장’으로 나뉜다.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보내는 편지’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쓰는 문안 편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쓰는 문안 편지’의 순서로 소개가 된다. 뒤이어 ‘새 사돈간 편지’라 이름 붙인 ‘신부 측 사돈이 신랑 측 사돈에게 쓰는 편지’가 소개된다.

다음으로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답장’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이 차례로 소개된다. 그리고 ‘신랑 측 사돈에서 신부 측 사돈에게 쓰는 답장’이 나오고, 흥미롭게도 ‘시조모가 손자며느리에게 쓰는 답장’, ‘시숙모가 조카며느리에게 쓰는 답장’이 이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행 문안 편지	
1)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쓰는 편지	(1)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쓰는 문안 편지
	(2)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쓰는 문안 편지
	(3) 신부 측 사돈이 신랑 측 사돈에게 쓰는 편지
2)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쓰는 편지	(1)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
	(2)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
	(3) 신랑 측 사돈이 신부 측 사돈에게 쓰는 답장
	(4) 시조모가 손자며느리에게 쓰는 답장
	(5) 시숙모가 조카며느리에게 쓰는 답장

초행 문안 편지 규칙의 구성을 정리해보면,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신부 측 사돈이 신랑 측 사돈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에 대해 신랑 측에서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신랑 측 사돈이 신부 측 사돈에게 답장을 한다. 1)-(1)과 2)-(1), 1)-(2)와 2)-(2), 1)-(3)과 2)-(3)이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랑 측 ‘시조모’, ‘시숙모’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인 2)-(4)와 2)-(5)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재행 문안 편지’이다. 재행 문안 편지 역시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보내는 편지’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답장’으로 나뉜다.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보내는 편지’의 소개 순서는 초행과 동일하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쓰는 문안 편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쓰는 문안 편지’의 순서로 소개가 된다. 뒤이어 ‘신부 측 사돈이 신랑 측 사돈에게 쓰는 편지’가 소개된다.

다음으로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답장’이다. 역시 초행 문안 편지와 동일하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이 차례로 소개된다. 그리고 ‘신랑 측 사돈에서 신부 측 사돈에게 쓰는 답장’이 나온다. 다만 초행 문안 편지에 보였던 ‘시조모’, ‘시숙모’ 답장은 없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행 문안 편지	
1)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쓰는 편지	(1)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쓰는 문안 편지
	(2)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쓰는 문안 편지
	(3) 신부 측 사돈이 신랑 측 사돈에게 쓰는 편지
2)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쓰는 편지	(1)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
	(2)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
	(3) 신랑 측 사돈이 신부 측 사돈에게 쓰는 답장

재행 문안 편지에서는 시어머니의 답장과 시아버지의 답장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생략된 부분이 있다. 먼저 1)-(2)의 내용이다. ‘사연을 위(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쓰는 문안 편지)와 같이 한다’고 간략하게 밝히고 끝냈다. 마찬가지로 2)-(2)도 생략되었다. ‘시아버지에게 답하는 편지도 위(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쓰는 답장)와 비슷하다’고 언급하고 끝냈다.

맨 마지막에는 ‘삼행’, ‘사행’을 언급하며, 이때도 양쪽 집안에서 오가는 편지의 내용이 이와 유사하고 사연만 조금 달리하여 기록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4. 문헌의 가치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언문혼간규식」의 서지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이 문헌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언문 문장의 기본 서식을 알려 주는 이른바 ‘언간독’류는 대체로 방각으로 간행된 인쇄본이 소개되어 왔다. 「언문혼간규식」은 ‘언간독’류가 방각본과 일정한 영향 관계를 맺으며 공존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언간독’류는 대체로 언문 문장이 사용되는 여러 분야의 서식 전반을 소개하였다. 「언문혼간규식」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혼례’와 관련한 문장 서식만을 소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언간독’류가 정형화된 모습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 당대 생활인들의 필요에 따라 실용적으로 변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대인들의 언문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고 깊게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혼례’와 관련한 문장 서식만을 엮은 경우를 이제껏 보지 못했거니와, 그 안에 ‘시조모’나 ‘시숙모’의 답장이 등장하는 사례는 없는 듯하다. 문헌 텍스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혼례’용 문장 서식 모음집을 필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례적 편지이지만 그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간독’류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었다. 이 문헌의 존재를 계기로 ‘언간독’류를 수집하여 이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반 백성들, 특히 여성들의 한글 사용 문화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언문혼간규식」은 당대 민속의 일면을 엿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전통 혼례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민속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사례나 경우가 워낙 다양하여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혼례 문화의 흔적을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언간독」(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증보언간독」(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언문혼간규식」(미국 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 소장본)

2. 단행본 및 논문

김봉좌, 「조선시대 방각본 언간독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봉성기·이혜은, 「미국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56, 한국서지학회, 2013.
 이혜은, 「미국소재 한국고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최영호,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현대사연구』 5, 한국현대사학회, 1994.
 최지녀, 「〈언간독〉(諺簡牘)과 한글 편지를 통해 본 근대의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 기타 자료

『미주한국일보』, 2005.5.6.
 『동아일보』, 1970.4.22.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한국고전종합합목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Abstract

The Korean Vernacular Manuscript “Eonmunhonganggyusik” Held at Hamilton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Expanding Gloc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through the
 Discovery of New Overseas Hangul Classical Texts

Eom, Tae-Ung |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troduces and examines the bibliographical and textual features of the handwritten Korean manuscript 「Eonmunhonganggyusik」, identified at the Hamilton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The manuscript is presumed to have been written in 1908 and represents a type of Korean epistolary manual that shares certain characteristics with the widely circulated woodblock editions 「Eongandok」 and 「Jeungboeongandok」. What distinguishes this manuscript is its exclusive focus on the formats of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two families during the wedding rites. The manual presents the structure of correspondence exchanged during the ‘chohaeng’ (first visit) and ‘jaehaeng’ (second visit), primarily in the sequence of ‘letter from the bride’s side – reply from the groom’s side’ and, in several cases, condenses repetitive contents to provide streamlined templates. These features reveal that, although epistolary manuals were disseminated as standardized printed editions, they were also adapted in practical contexts according to contemporary needs. Moreover, Eonmunhonganggyusik holds significant value as a historical source, illuminating women’s actual participation in wedding rituals, their agency as writers of Korean letters, and traces of everyday cultural practices at the time.

Keywords “Eonmunhonganggyusik”, Eongandok, Marshall Pihl, Hamilton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Old Korean manuscripts